

ICID 제49차 집행위원회의 및 제10차 아시아-아프리카 지역회의에 참가하고서.....

서 승 덕

(한국관광개발수위원회 부회장 · 경북대학교 교수)

발리는 동남아 적도 이남의 관광의 섬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큰 섬들의 나라인 인도네시아의 영토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관광평소인 발리가 인도네시아 보다 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인

도네시아는 수자원개발사업의 구역도 Sumatra, Java, Kalimantan, Sulawesi, Bali & Nusa Tenggara 그리고 Maluku & Irian Jaya 구역으로 섬에 따라 크게 나누어진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群島國으로서 국가를 구성하며 5대섬으로 Java, Sumatra, Kalimantan, Sulawesi 그리고 Irian Jaya를 들 수 있고 30개의 집단 小群島가 있으며 국가전체의 섬은 17,508개로 밝혀져 있다. 이들은 아시아대륙과 대양

ICID 제49차 집행위원회의와 제10차 아시아-아프리카 지역회의가 지난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1주일간의 일정으로 세계적인 관광의 요람으로 알려진 적도부근 인도네시아 Bali섬의 Sanur, Denpasar에 있는 The Grand Bali Beach Hotel에서 46개국 450여 회원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여기 그 참가기를 간단히 적어 보고자 한다.

주 사이에서 적도를 중간에 두고 상하로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가 나라를 통치하기는 어렵겠지만, 자국민들이 특성있는 섬사이를 나들이 하기에는 아주 재미있는 나라라고 생각된다.

특히 이번에 ICID 국제회의가 개최된 Bali 섬은 인도네시아의 17,000여개의 섬중 하나이며 제주도의 3배 정도의 면적을 가진 곳으로, 저들은 말하기를 신이 준 아름답고 성스러운 곳, 풍부한 자연으로 복 받은 곳, 녹색의 보석과도 같은 벼·논, 잔잔하고 푸르른 호수, 힘있게 흐르며 폭포를 많이 가진 하천, 끝없는 그리고 눈부신 산호초로 뒤덮인 황금물결의 해안, 강렬한 화산, 시원스럽게 우뚝 솟은 산봉우리 등 오랫동안 극락의 섬으로 새롭게 알려졌은 곳이라고 예찬하고 있

다. 그래서인지 환영 만찬 중 Bali 주지사로서 있는 Ida Bagus Oka 박사는 환영사의 한토막에서 "Never die before seeing Bali - the Paradise Island"라고 갈파한 바 있다.

회기중 틈을 내어 몇군데를 살펴보니 정말 예찬할만한 아름다움이 있고, 특히 새와 식물의 공원인 Tamam Burung Bali(Bird Park)는 이러한 남국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곳이기도 하였다.

또 350kg 이상의 큼직한 악어를 포함해서 500여 마리 이상 사육되고 있는 Indonesia Jaya Reptile & Crocodile Park, 세계의 모든 원숭이가 다 모인 것 같은 Sangheh Monkey Forest, 코끼리의 전당 Elephant Safari Park, 곳곳에 찬란하게 지어진 힌두교의 사원들, 3,000m가 넘는 Agung 산 등의 산맥지대, 고산의 평지에 금잔디 깔린 골프장인 Bali Handara Kosaido Country Club은 섬에서 보기 힘든 장관이기도 하였다. 곳곳에 자리한 호수와 폭포 등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진 장엄한 신비의 섬! 또 해안의 신비한 백사장 구비구비가 어느 한 곳 버릴 곳이 없는 관광의 요지가 아닌가 싶다. 결코 하와이섬에 견줄바가 안 되리라...

그들은 고유의 힌두교를 주 종교로 전체 주민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2~3%는 기독교와 불교,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잡교를 믿고 있다. 가는 곳마다 힌두교의 사원이 관광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개인의 가정에서도 제단을 볼 수가 있다.

주업은 농업과 어업 그리고 관광사업이며, 유명한 발리의 1,200여개나 되는 관개조직 단체인 Subak과 협동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곡 단지만도 160,000여 ha에 이르고 있다. 또한 계단식 개답으로 이들은 지금도 인력과 축력으로 경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번 ICID 제49차 집행위원회 및 제10차 아시아-아프리카 지역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단은 KCID 조홍래 회장을 단장으로 하여 총 15명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전체회의, 분과회의, YPF, 국제협력 등의 임무를 가지고 1998년 7월 19일 출발하여 7월 26일 모두 무사히 서울에 도착하였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국제회원국의 참가현황을 보면, 46개 국가, 3개 단체(World Bank, FAO, IPTRID) 450여명이 참가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부부 동반자와 20일 이후 지각 참석자들을 고려하면 숫자는 이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며, 예년 회의 보다 다소 숫자가 적은 것은 얼마전 인니의 국내사정에 의한 안전염려와 국제적 경제여건 악화에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특히 중국 회원의 참석(4명)이 저조한 것은 인니의 중국인 살상사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었고, 참석 중국인들 역시 회의기간 동안 불안속에 체류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갔다.

회의는 Bali의 Denpasar, Sanur에 있는 Grand Bali Beach Hotel에서 집행위원회는 20~24일까지, 그리고 아시아-아프리카 지역회의와 Y.P.F 회의는 21~23일 개최되었으며, 한국대표단은 회의장으로 부터 도보로 10분거리에 위치한 Radisson Hotel에 투숙하여 의미있는 남국의 생활을 1주일간 만끽하였다.

활동사항으로는, 회장은 전체행사, 집행위원회, 회장단 초청연 등에 주로 참여하였고 다른 참가자들은 ICID 각 분과위원회 및 워크숍 등에 참석하여 발표, 청취, 토의 및 의사 전달 등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재정상임위, ICID 편집위, IPTRID 자문회의에는 정병호 전임이사, 권순국 부회장, 이남호 마이크로관개분과위원장이, 아시아-아프리카 지역회의에는 유혁

ICID 발리회의의 참가기

우 수리시설운영관리분과위원장, 김주창 이사, 이근후 이사의 다수가 참여하였으며, IEC Meeting에는 KCID 회장단 외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밤 늦게까지 참석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지역회의와 폐회식 및 매일 개최되는 리셉션에도 매번 참석하여 친선도모 및 정보교환 등 국제관계를 공고히 다지는데 일조를 하였다.

한편, 주체측인 인니위원회와 발리시장 초청 환영 만찬식에서는 식당입구 가두에 유치원생으로부터 성인층에 이르기까지 수백명이 환영기를 들고 가두에서 도열 환영해 주는 모습 등 문화행사 및 모든 준

비가 진정 주최국으로서 손님을 맞는 예절이 완벽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인니 건설부 장관의 초청, 1999년 개최국인 스페인의 초청, 2000년 개최국인 남아공의 초청, 그리고 2000년 Workshop 개최국인 일본의 초청 등 모두 나름대로 자국을 알리고 국제관계를 돈독히 다지는 좋은 계기로 이는 본 ICID의 특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 대표단들은 빠짐없는 회의참석과 2001년 서울회의에 지구촌의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하도록 틈틈이 홍보활동을 펴는 한편 유대를 강화하는 모습들이 역력하였고, 다른 국가 참석자들도 만나는 사람마다 "2001 in Korea"를 연발하면서 관심을 가져줄 때 가슴이 찡하는 전율과 함께 이제 우리의 개최가 정착

되어 가는가 하는 확신과 기대 그리고 책임감을 실감하였다.

이제 내년 스페인 회의부터는 보다, 실질적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사명의식을 느끼며, 지금까지 해온 개최국의 모든 장점을 흡수하고 여기에 한국적인 특성을 더

욱 가미해서 분투 노력한다면 우리의 소망이었던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한국관개배수위원회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특히 참가국가의 국기 게양, 참가회원에게 참가 증서 수여, 환영연식 주최국의 국가연주 제공 등 참가국들에 대한 작은 배려까지 이 모든 것을 거울삼아 조직적인 준비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발리회의의 현장견학중 깐따마니(Kintamani) 화산지대에서 기념촬영한 KCID 대표들
(뒷줄 좌측에서 세번째가 필자)